

6

백제인의 일본 정복과 야마토 왜의 창건

기록된 자료에 의한 재구성

(1) 일본 정복의 신화적인 묘사: 하늘로 부터의 강림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는, 아마도 야요이(彌生) 시대의 어느때엔가, 스사노오(아마테라스의 남동생)가 하늘에서 신라로 내려가, 한동안 그곳에 살다가, 일본의 이즈모(出雲)지방으로 건너 갔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뒤따르는 기록에서는, 스사노오의 자손은 일본을 통치하기에 적합치 않다고 생각 되었으며, 아마테라스는 다른 신들을 내려 보내, 자기의 손자 니니기(瓊瓊杵尊)가 일본을 다스릴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다고 말한다(제5장, 제1절 참조).

일본서기(NI: 64)의 “신의 시대(神代)”편을 보면, 실제로 니니기로 하여금 일본을 통치케 하려고 노력한 것은, 할머니 아마테라스보다 오히려 외할아버지 다카미 무스비(高皇產靈尊)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 . 아마테라스(天照大神)의 아들은. . . 다카

미 무스비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¹ 그들 사이에 니니기 라는 아들이 태어났다. . . 그의 외할아버지 다카미 무스비는. . . 이 외손자를 갈대로 덮힌 중앙의 땅(葦原中國)의 주인으로 만들고 싶어했다. 그러나 그땅에는 반딧불처럼 뽀짝이는 귀신들과 파리처럼 웅 웅 거리는 악귀 등, 많은 신들이 살고 있었다. . . 그래서. . . 다카미 무스비는 아마노 호히(天穗日命)를. . . 보내어 그들을 무찌르도록 했다. 그러나 아마노 호히는, 오오나모치(大己貴神, 스사노오의 아들)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1>}

그래서(NI: 65) 다카미 무스비는 다시 아메와케를 파견 하였으나, 그는 불충스런 생각을 품고 그 땅을 자기 자신이 차지하고자 했다. 아메와케는 시타테루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곳에 눌러 앉아 끝내 자기 임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1>} 당시 그 중앙의 땅은 조용하다는 것과는 인연이 먼 장소였다. 일본서기(NI: 76)는 “보기에도 소름이 끼치는 황폐한 땅”으로 묘사하고 있다.^{<1>} 이런 이유때문에 다카미 무스비는 자기 외손자 니니기를 그 중앙의 땅에 내려 보내기 위해, 또 다시 좀더 노력을 해야만 했다. 그는 다카미 카즈치와 후쓰무시를 이즈모(出雲)에 보내어 [원래 신라에서 온] 스사노오의 아들과 담판하게 했다. 두 신은 스사노오의 아들 오오나모치(大己貴神)에게 따졌다(NI: 68): “다카미 무스비는 손자님을 이 나라에 보내어 임금으로서 다스리게 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이 곳을 평정하라고 우리 두 신을 보내셨다. 그대는 어찌려는가? 우리 앞을 가로 막겠는가, 비켜 서겠는가?” 스사노오의 아들 오오나모치는 대답했다(NI: 69): “만일 내가 저항한다면, 이

¹아메노 미나카 누시(天之御中主尊) 및 가미 무스비(神皇產靈尊)와 더불어 다카미 무스비(高皇產靈尊)도, 천지 창조자의 하나다. 이자나기(伊弉那岐)는 아메노 미나카 누시의 16세손이다. 아마테라스는 이자나기의 왼쪽 눈으로부터 태어났다. 니니기는 이 여신의 손자다. 진무(神武)는 니니기의 손자의 넷째 아들이다. 지금 우리는 제1세대 신인 다카미 무스비의 딸과 제17세대 신인 아마테라스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다.

땅의 모든 신들도 틀림없이 저항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암전히 물러나는 마당에, 다른 누가 감히 대담하게 항복을 안하겠는가?”

일본서기(NI: 69)는 계속한다: “그리고 나서 오오나모치는 자신이 그 땅을 평정할 때 쓰던 무기인, 날이 넓은 창을 집어 두 신에게 주었다. . . . 그러자 두 신은 반항하는 모든 악령과 귀신을 죽여 버렸다.” 일본서기(NI: 69-70)에 의하면, 이 두 신이 그 중앙의 땅에서 반항하는 모든 악령과 귀신을 굴복시킨 다음에야 비로써 다카미 무스비는, 외손자 니니기로 하여금 하늘의 바위자리(天磐座)를 떠나 지상으로 내려가게 했다는 것이다.²⁾

일본서기(NI: 76-77)는, 아마테라스가 니니기에게 세 가지 보물(三種寶物), 즉 큰 곡옥(曲玉), 야하타의 큰 거울(八咫鏡), 쿠사나기의 큰칼(草薙劍)을 주고, . . . 나카토미(中臣)의 시조, . . . 임베(忍部)의 시조, . . . 사루메(猿女)의 시조, . . . 거울 만드는 장인의 시조, . . . 보석 만드는 장인의 시조, 모두 합해 5부의 신(五部神)들로 하여금 그를 수행하게 했다고 한다.³⁾ 각 베(部)의 신들은 모자장이[창이 넓은 모자를 꿰만드는 자], 방패장이, 대장장이, 나무 섬유장이, 보석장이 등의 시조들로 구성되어 있었다(NI:81).

일본서기(NI: 90)에 의하면, 니니기가 “강림한 곳은 휴우가(日向)의 소(襲)에 있는 다카치호(高千穗)의 소호리 산(添山) 봉우리 [‘소호리’는 한국어로 ‘서울’이라는 뜻이다] 였으며, . . . 그는 거기서 나아가, . . . 아타의 가사사 곳(岬)에 이르러, 마침내 나가야의 다카시마 섬에 상륙하게 되었다.”⁴⁾ 이 이야기는 실로 일본서기 제1권과 제2권의 핵심으로, 신대(神代)의 설화가 인도해가는 절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 그 바로 뒤에 전개되는 인대(人代)에 관한 설화의 선행(先行) 구실을 하는 것이다. “인간의 시대”의 이야기는 진무(神武)가 큐우슈우를 거쳐 중앙 평원을 정복하는 데서 시작하는 공식적인 사이비 역사가 되는 것이다.²⁾

²⁾가미야마토 이하레비코(神倭伊波禮毘古, 神日本磐余彦尊, 神武)는, 니니기의 손자의 넷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 일본서기(NI: 108)에 의하면, “사노가 그의 어릴 때 이름이었다. 나중에 그가 나라를 평정하고 8개 섬 모두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가

레드야드(1975)는 아마테라스의 손자 니니기가, 일본의 모든 산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강림(降臨) 신화의 대상으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아보이는 큐우슈우의 구지후루(久士布流多氣)를 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멀리 떨어진 구지후루는, 원주민 출신 이면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구성원들의 신들에 의해 이미 접수되지 않은, 단 하나의 신성한 봉우리였다.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씨족이 그렇게 외지고 황량한 곳에 씨족 성산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씨족이 토착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³

고사기(古事記)의 편찬자인 궁정 귀족 야스마로(太朝臣安萬侶, ?-서기 723년)는, 야마토 황족의 기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다(KC: 1-2): “백왕(百王)이 서로 뒤를 잇고, . . . 무수한 신들이 번창했다. . . . 치밀하게 도모를 하시어, . . . 천하가 평정되었다. . . . 그래서 니니기가 먼저 다카치(高千)의 봉우리에 감림하시고, 카무 야마토(神倭天皇, 니니기의 손자)는 잠자리 섬(秋津島)을 가로 지르셨다. . . . 다카쿠라에서 천검(天劍)을 얻고, . . . 거대한 까마귀가 그를 요시노(吉野)로 안내했다. . . . 그들은 적의 대군을 격파하고, . . . 적병을 무찔렀다. . . . 그리하여, . . . 그는 현군(賢君)이라 칭송을 들으셨다. . . . 그는 검은 머리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 . . 국경을 정하시고, 나라를 개화(開化) 하셨으며, 가까운 아후미(近淡海)에서 법을 공포하여 카바네(姓)를 정하시고, 우지

미야마토 이하레비코라는 칭호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⁴ 진무는 후세의 간무(桓武, 재위 781-806년) 때 고안된 명칭이다.

³라이샤워(1937: 8)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황족과 후우가노 쿠니(日向國)와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정말로 있었을까? 아니면, 이 태양을 향한 여신(天照大御神)의 자손들 이라고 주장하는, 천손들이 강림 한곳 이라고 말하기에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지방(쿠니, 國)이 니니기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 나중에 선택된 것일까?” 흥미있는 사실은 옛 후우가노 쿠니(日向國)에 해당하는, 현재의 미야자키 현(宮崎縣)의 후우가 시로 부터 큐우슈우 산맥 속으로 40km쯤 들어간 곳에, 백제마을(百濟里, 南郷村)이라고 부르는 고장이 있는데 이곳주민 3천여명의 대부분이 자신들을 백제후손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氏)의 이름을 지어주셨다(正姓撰氏). 그는 먼 아스카(遠飛鳥, 지금의 나라 현)까지 지배하셨다.”⁶⁾

메이어(1976: 20)는, 진무의 동방 정벌에 관한 이야기가 고고학적 기록과 일치하지만, 그 실제의 날짜는 전설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아마도 천년은 뒤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로 김성호(1993)에 의하면, 일본서기(NI: 110-137)에 실린 진무의 이야기는, 백제 왕족의 한 사람인 호무다(譽田別)가 초기에 경험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서기(NI: 110)가 말하고 있듯이, 야요이(彌生)시대의 일본은 분명히 “아직도 임금의 은택(王澤)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읍은 언제나 나름대로 읍장을 가질 수 있었고, 모든 마을은 촌장을 가질 수 있었으며, 각자 모두 영토를 나누어 가지고, 서로 침략하고 싸우고 있었다.”⁴⁾ 당시 백제의 호무다는, 이 땅, 일본이야 말로 백제 왕족의 지배를 확장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기록을 가지고, 호무다가 야마토 왜(大和倭)를 창건하는 과정을 재구성해 본다.

(2) 호무다(譽田別), 일본 정복을 결심하다: 시작

4세기 후반의 어느 때인가 호무다(즉, 神武)는, 일본 정복에 관한 자신의 계획을 백제의 다른 왕족들에게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NI: 110-11): “나는 바다의 토로(土老)로부터, 동쪽에 가면 사방이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땅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게다가, 그 곳에는 얼마전에 하늘의 바위배(天磐船)를 타고 날아 내려간 사람이 있다고 한다. 나는 그 땅이야 말로 의심할 것도 없

⁴⁾ 이 기록 앞에는 호무다(譽田別)를 지칭하는 가미야마토 이하레비코(神日本磐余彦尊)의 말이 나온다(NI: 110): “옛날, 우리의 천신(天神)께서는. . . 이 기름진 갈대 평원의 아름다운 벼의 땅을 가리키시며, 이것을 우리의 하늘의 조상이신 니니기(彦火瓊瓊杵尊)에게 내려 주셨으므로. . . 그는 정의를 소중히 가꾸시고, 이 서쪽의 변경을 다스리셨다.”⁴⁾

이, 우리가 수행할 하늘의 대업(大業)을 확장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 . 그 날아 내려간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 니기하야히(饒速日)가 틀림없다. 우리가 그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 . ?” 일본서기(NI: 111)는 계속한다: “모든 황자들은 대답했다: . . . ‘그 생각은 늘 우리의 마음에도 있었습니다. 어서 그 곳으로 가십시오.’” 그해, 겨울에. . . 천황은 몸소 황자들과 동방 정벌의 해군병력을 인솔했다.”⁶⁷⁾

4세기 말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동일한 이동 과정이, 고사기(KP: 141)에도 신화처럼 기록되어 있다: “. . . 니니기는. . . 하늘로 부터 쓰쿠시(筑紫)의 휴우가(日向)에 있는 다카치호(高千穂)산의 구지후루타케(久士布流多氣) 봉우리에 강림했다. . . 이때 그는 말했다: ‘이곳은 가라[한국]의 땅과 마주본다(向韓國); 이곳은 가사사 곳(岬)을 거쳐 곧바로 도달하는 곳이다. 이 곳은 아침 햇살이 직접 비치고, 저녁 햇빛이 찬란한 땅이다. 이 곳은 참으로 훌륭한 곳이다.’”⁶⁸⁾ 고사기(KP: 163)는 결국에 가서 이 이야기들을 진무(神武)의 이야기와 결부시킨다: “다카치호의 궁전에서. . . 형 이쓰세(五瀬)와 함께 살고 있던. . . 이하레비코(伊波禮毘古)는, 형에게 의논하여 말했다: ‘천하의 정치를 평화롭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곳에 자리를 잡는 것이 좋을까? 나는 동쪽으로 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하여 휴우가(日向)를 떠난 그는 쓰쿠시(筑紫, 큐우슈우)로 갔다.”⁶⁹⁾ 에가미(江上波夫, 1964)는, 고사기가 특별히 가라[한국]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실은, 한국이 바로 “천신들의 원 고향”이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신들의 원 고향”은 바로 “백제”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⁶⁷⁾체임버린(KC: 137-138)은, 일본학자 모토오리(本居宣長)가 “일본의 신대(神代)에 관한 전통적인 기록에, 한국이 우호적인 방식으로 언급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체임버린은 또, 모토오리가 “. . . 비록 (원문의) 내용을 실제로 감히 고치기까지는 못했지만, 그 기록자체가 와전 된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어 번역판 에서는” 한국을 언급한 문장을 삭제 시켰다고 지적했다.

(3) 백제 진(眞)씨 집안의 왕후와 왜(倭)의 마히토(眞人)

김성호(1982: 204)는,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의 기록이, 오오진(應神)계 천황들의 성이 진(眞, 마히토)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¹⁰⁾ “진(眞)”은 백제 왕족 외척(外戚)의 주요 성씨중의 하나였다. 이기백(1983: 37)은, “근초고왕(近肖古王, 餘句)의 직속 후계자들이 배우자를 이 귀족 집안(眞氏)에서만 선택 하므로써, 이른바 ‘진씨 집안 왕후의 시대’가 시작된 것은” 바로 근초고왕 치세 때부터 였다고 말한다.⁶⁾

삼국사기(이병도 역주, 하: 2)에 의하면, 근초고왕은 서기 347년에 “진정(眞淨)”을 조정좌평(朝廷左平)에 임명했다. 진정은 “왕후의 친척으로, 부덕하고 성격이 포악한 인물 이었으며, 만사가 까다롭고, 세도에 자신 만만하여 모든 일을 멋대로 처리 했으므로, 사람들이 몹시 미워했다”고 한다.⁷⁾¹¹⁾ 신찬성씨록에 의하면, 호무다(譽田別, 진무-오오진)는 이 진정(眞淨)과 매우 가까운 관계였을 수 있고, 어쩌면은 그의 직계자손, 예컨대 그의 딸중의 하나가 나은 손자였을지도 모르며, 이는 다카미 무수비(高皇產靈尊)와 그의

⁶⁾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백제 초고왕(肖古王, 재위 166-214년)은, 서기 214년 북부(北部)의 진과(眞果)에게 말갈의 석문성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서기 240년에 고이왕(재위 234-286년)은 진충(眞忠)을 좌장(左將)에 임명하여, 내외의 병마사를 맡겼다. 서기 247년에는 진물(眞勿)이 좌장에 임명되었다. 서기 261년에 고이왕은 진가(眞可)를 내두좌평(內頭左平)에 임명했다. 서기 331년에 비류왕(比流王, 재위 304-344년)은 진의(眞義)를 내신좌평에 임명했다. 서기 376년에 근구수왕(近仇首王)은 장인 진고도(眞高道)를 내신좌평에 임명하여 정사를 맡겼다. 서기 390년 진사왕(辰斯王)은 진가모(眞嘉謨)에게 고구려를 공격할 것을 명령했으며, 그는 도곤성(都坤城)을 함락하여 200명을 사로잡았다. 이어 왕은 그를 군사 담당 좌평(左平)에 임명했다. 서기 393년에 아신왕(阿莘王)은 진무(眞武)를 좌장(左將)에 임명하여 군사 문제를 일임했다. 진무는 왕의 외숙이었다.

⁷⁾놀랍게도 이 구절은, 근초고왕(近肖古王)이 즉위한 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기록인 것이다. 이어 삼국사기의 기록은 서기 366년으로 비약한다. 서기 347년에서 366년까지 19년간의 기록이 없는 것이다. 진정(眞淨)에 관한 언급도 그 이상 없었다.¹¹⁾

외손자 니니기(瓊瓊杵)와의 관계를 연상케 한다. 아무튼, 신찬성씨록은 황족의 오오진(應神)계 씨족 이름이 “진(眞, 마히토 真人)”이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백제 왕족의 후손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시사하는 기록도 포함하고 있다.^{8 <10>}

(4) 백제와 마한(馬韓)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의 창건자 주몽(朱蒙)은, 첫째 부인한테서 유리(類利)라는 아들 하나를 얻었고, 둘째 부인한테서 비류(沸流)와 온조(溫祚)의 두 아들을 얻었다고 한다. 유리가 왕위에 오른 뒤, 비류와 온조는 고구려를 떠나 마한 지역으로 왔다. 온조는 백제를 세웠다. 비류도 나라를 하나 세웠으나, 끝내 온조의 백제에 흡수되었다. 위지(魏志)에는 마한 지역에 있던 55개 부락 국가의 이름들이 실려 있는데, 이명단 속에는 실제로 “백제(伯濟國)”라는 이름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⁹

원래의 백제 국가는 한강 분지에 있는 여러 부락 국가들을 병합

⁸이노우에(井上, 1977)에 의하면, “마히토(真人)”는 서기 684년, 그때까지 내려오던 오미(臣), 무라지(連), 이나기(稻置) 칭호들 위에 추가로 제정된 다섯개의 새로운 칭호들 중의 하나였으며, 마히토(真人)는 기미(君) 칭호를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케이타이(繼體)의 후손인 왕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새로 선정된 씨족의 족보는 간무(桓武)의 치세(서기 781-806년) 때 편찬되기 시작해서, 서기 815년에 완성되었다. 이 족보는 먼저 지역별로, 다음에는 추정 계보별로 1,182계 우지(氏)를 분류하고 있으나, “우지 이름들은 출생지와 세력권에 따라 기재하고, 마히토(真人) 칭호를 제외하고는 가바네(姓)의 순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⁹김성호(1982)는, 온조왕(溫祚王)의 백제가 북부 마한(馬韓) 지역을 병합했고, 남부 마한 지역은 비류국(沸流國) 하나로 통합 되었으며, 이 두개가 합쳐져 후에 단순히 백제라고 알려진 연합 왕국이 형성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 김(1982)은 비류국의 수도가 서기 396년까지 웅진(熊津, 현재의 公州)이었으며, 서기 396년에 비류의 왕족은 한국을 떠나 일본에 정착하여 야마토(大和) 국가의 황족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웅진은 서기 475년에서 538년까지 온조 백제의 수도가 되었으며, 서기 538년에는 수도가 부여(扶餘, 또는 사비)로 옮겨졌다.

하여 하나의 왕국으로 된 것이다. 이기백(1984: 36-37)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백제의 중앙 집권적, 귀족국가로서의 조직은, 근초고왕(近肖古王, 재위 346-375년) 때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무서운 장수인 동시에 국왕이었던 그는, 369년에 마한을 격파했는데, 마한은 당시 수도를 남쪽에 있는 오늘날의 익산(益山)으로 이전해 놓고 있었던 것 같다. . . . 이어 371년에 백제는 북으로 고구려 영토를 평양까지 쳐 들어가서 고구려의 고국원왕(故國原王)을 살해했다. . . . 이렇듯 백제는 한반도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그 속에는 황해도와 강원도의 일부는 물론 경기, 충청, 전라도 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5) 마한의 정복과 왜(倭)를 향한 원정군: 근접해본 그림

일본서기(NI: 43)는 백제 성왕(聖王, 聖明王, 재위 523-554년)의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날 나의 선조 속고왕(速古王, 近肖古王, 재위 346 - 년)과 귀수왕(貴首王, 近仇首王, 재위 375-384년) 치세때, 안라(安羅), 가라(加羅), 탁순(卓淳)의 한기(旱岐)들이 먼저 사절을 보내 와서, 서로 통교하게 되었다. 우리는 정중하게 우호관계를 맺었으며, 그들을 자제(子弟)와 같이 대해주었다.”^{<12>}

일본서기(NI: 246)의 서기 366년[일본서기 방식으로는 서기 246년] 조에는, 탁순왕의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다: “갑자년(甲子年, 서기 364년)에 구저(久氏), 미주류(彌州流), 막고(莫古)라는 이름의 백제인 세 사람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말했다: ‘백제왕은, 동방에 일본이라는 귀한 나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신들을 귀국 조정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컨대 우리가 그땅[일본]에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임금님 [탁순왕]께서 신들에게 그곳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 국왕께서 깊은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나[탁순왕]는 구저와 그의 동료에게 말했다: ‘나도 동쪽에 한 귀한 나라[일본]가 있다는 말을 늘 들어 왔소

만, 그 나라와 통교가 없어서 길을 모르오. 우리와 그 나라 사이에는 먼 바다와 험한 파도밖에 없으므로, 큰 배가 있다고 해도 건너 가기가 힘들 것이오. 설령 나루터(路津)가 있다고 한들, 어떻게 건너 갈수 있겠소?’ 그러자 구제 일행은 말했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통교 할수가 없겠습니다. 돌아가서 선박을 준비한 다음 차후에 통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¹³⁾

서기 364년 현재, 한성(漢城)은 백제의 수도였으며, 마한은 아직도 한반도의 서남쪽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백제 사람들이 분명히 일본의 존재에 대해 듣고는 있었어도, 일본으로 가는 통로에 대해서는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 당연했다. 호무다(嚮田別)와 그의 추종자들이 일본으로 들어간 것은, 일본으로 가는 통로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찰을 보냈던 그 갑자년으로 부터, 그리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은 때였을 것이다.

일본서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가야의 왕(말금 한기, 末錦 早岐)이 구제(久氏)에게 큰 배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서기(NI: 284-249)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오히려 서기 369년에 왜(倭)가 “백제 장군들”을 데리고 대규모로 한국을 침공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일본서기에 서술된 이들 군사 활동을, 왜(倭)가 했던일로 이해 하려고 한다면, 이 “백제장군”들이 왜군과 어울려 돌아다닌 것을 이해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이 일련의 군사 활동을, 호무다(嚮田別)라는 백제의 왕자가 인솔하는 백제 왕족 및 그 추종자 집단의 행동이라고 생각 한다면, 이 기록들은 아주 이치가 맞는 이야기가 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페스니악(1951)이 좀 다른 맥락에서 한 논평을 반추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가장 비판적인 역사가라 하더라도, . . . 일본서기와 고사기에만 의존한다면, 4세기 말과 5세기 초에 일어난 한일 전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없으며, 역사적 진실을 재구성 해볼수 없을 것이다.”

일본서기(NI: 248)는, 서기 369년에 “아레다 와케(荒田別)와 가

가 와케(鹿我別)가 장군으로 임명되었다. 그들은 구저(久氏) 및 그 밖의 사람들과 군사를 준비하여. . . 탁순(卓淳)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14>} 일본서기에 의하면, 이 “구저”라는 사람은, 서기 364년에 탁순을 방문한 백제인 세 사람 가운데 하나 이었다. 탁순은 낙동강변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낙동강은 오늘날의 부산을 향해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므로, 일본으로 건너가는 가장 가까운 통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본서기(NI: 191-1922)에 의하면, 게이코오(景行)는 자식을 80명이나 두었으며, 아마토다케, 와카타라시와 황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식들은 모두 봉토(封土)를 주어 지방에 내려 보냈다고 한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 구니(國)의 와케(別者)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갈라진 왕자들(別王)의 후손들인 것이다.”^{<15>} 백제는 봉건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왕자들과 그밖의 왕족들에게 지방의 군현을 봉토를 나누어 주었다. 야마토 왜(大和倭)에서 사용한 “와케(別)”라는 칭호는, 한국의 이들 백제왕자의 칭호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남사(南史)의 백제편에 의하면, 백제는 일찍이 왕자들이 다스리는 22개 봉건현(첨로, 담로 擔魯)을 가지고 있었다(제3장 제4절에 인용되어 있는 백제 장군 흑치상지 黑齒常之에 관한 기록도 참조). “아레다 와케(荒田別)”와 “가가 와케(鹿我別)”도 이들 왕자들 가운데 두 사람 이었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일본 원정의 지휘자인 호무다 와케(譽田別)는, 이들 왕족중에서도 근초고왕(近肖古王)에 가깝고 영향력도 큰 왕자중의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8년 사이타마(埼玉) 현에서 출토된 이나리아마 고분(稻荷山古墳)의 칼에는, 칼날 양면에 115자의 한자가 금으로 새겨져 있다는 것이 1978년에 밝혀졌다. 이 명문(銘文)은, 서기 411, 471, 531, 591 혹은 651년중의 어느 한 해와 일치하는 60 갑자의 어느 날자로 시작되고 있다. 무라야마(村山七郎)와 밀러(1979)는, 이 명문에서 한국이 그 근원임을 가리키는 언어학적, 문자학적 특징들이 많이 확인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명문의 작자, 칼의 임자, 그리고

이 칼이 출토된 고분에 묻힌 사람의 기원이 모두 백제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한다.¹⁰

무라야마 와 밀러(1979)에 의하면, 이나리야마 고분의 명문에서 얻은 중요한 발견의 하나는, “와케(別, 왕자)라는 칭호의 기원이 거의 틀림없이 알타이 어족”이라는 것이다. 이 명문에서 「와케」를 나타내는 말의 첫 표음 문자는 후오(獲, 사냥에서 포획하다, 잡다)로 써어 있는데, 이 글자는 사실 와(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표음 문자는 주(居)로 써어 있으나, 실제로는 「미야케」의 그것처럼 「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무라야마 와 밀러(1979)에 의하면, “이 말의 둘째 표음 문자는 거의 틀림없이, 이 명문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하고 아주 눈에 띄이는, 옛 백제 계통의 한국어 표현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형태소(形態素)「와케」는. . . 옛날 글에서는 잘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표어(表語) 문자, 특히 ‘젊음’이란 뜻의 「루어」, ‘별도’라는 뜻의 「비에」라는 글자가 사용되었다. . . [그것은] 거의 틀림없이 알타이 어원으로, 신분 또는 계급의 칭호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들은 “알타이어의 「백」은 알타이 어족의 세계에 널리

¹⁰무라야마 와 밀러(1979)는 이 명문 전체를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신해년 7월 중에 적는다(辛亥年七月中記); 오와케 오미의 옛 선조의 이름(乎獲居臣上祖名), 오오히코(意富比岐); 그의 자식의 이름 가리쓰쿠니(其兒多加利足尼); 그의 자식의 이름 데오가리 와케; 그의 자식의 이름 가카파치 와케; 그의 자식의 이름 다사키 와케; 그의 자식의 이름 판데피; 그의 자식의 이름 가싸파야; 그의 자식의 이름 오와케 오미; 우리는 오늘날까지 대대로 장도인(杖刀人) 우두머리로 봉사해 왔다. 와카 타키루대왕(獲加多支爾大王)의 조정이 시키궁(斯鬼宮)에 있을 때, 천하의 통치를 보좌했고(吾左治天下), 이 백련 이도를 만들게 하여(令作此百練利刀), 나의 봉사의 근원을 기록한다(記吾奉事根源也).” 그들은, 초기 일본의 금석문(金石文) 언어자료가 지금까지 모두 해서 칼에 새겨진 것이 75자, 금속 거울에 새겨진 것이 48자뿐 이었는데, 이나리야마(稻荷山) 칼 명문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자료의 크기가 두배로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종전의 금석문 자료와는 달리, 이나리야마 칼 명문에는, 분명히 중국어가 아닌, 고대 백제어가 거의 틀림없는, 46개 음절을 표시하는 표음문자(表音文字)로 사용된 22개의 상이한 한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⁴¹⁶⁾

통용되고 있던 왕후(王侯)의 칭호이며, 이를테면 터키어의 「백」, 몽골어의 「베기」, 만주어의 「벨리에」등이 그것들인데, 모두 ‘군주, 봉건 영주’를 뜻한다. . . .”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¹¹

이제 우리는 다시 일본서기(NI: 248-249)로 되돌아간다: “그들 [아레다 와케, 가가 와케, 구저, 그밖의 사람들]은 이욕고 막 침공하려고 했다. . . 그때 누군가 말했다: ‘당신네 군대는 너무나 수가 적다. 당신들은[적을]무찌르지 못한다. . . ’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사백(沙白)과 개로(蓋盧)를 보내어 정중히 군사의 증원을 요청했다.”^{<12>} 증원군을 요청하려 호무다(嚮田別)에게로 돌아간 이 사백과 개로 역시 백제의 장군들이었다. 일본서기(NI:249)는 계속한다: “목라근자(木羅斤資)와 사사노케(沙沙奴岐)가 즉각 명을 받들어 정병(精兵)을 거느리고, 사백 과 개로와 더불어 파견되었다.”^{<14>}

일본서기는, “진구우(神功) 황후와 그의 아들 호무다(嚮田別) 황태자”가 이들 네 사람의 백제 장군들에게, 정병을 이끌고 한국을 침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서기(NI: 249)는, 일본에서 바다를 건너온 것으로 되어 있는 이들 “백제 장군들”이, 아주 신기하게도 북쪽 내륙의 어느 지역에 먼저 집결한 다음, 남쪽으로 향한 정벌을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탁순(卓淳)에 집결하여 신라를 격파했다. 이욕고 [가야 지역에 있는]7개의[남부]지역이 항복 했는데, 비자본, 남가라(南加羅), 룡국, 안라(安羅), 다라(多羅), 탁순, 가라(加羅)가 그것이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은 서쪽으로 진로를 바꾸어 남부 마한 지역을 정복하고, 그땅을 백제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이어 그들은 병력을 움직여 서쪽으로 돌아서 고해진에 도착하여, 남쪽 오랑캐 침미다례를 도살하고, 그 나라를 백제에 주었

¹¹무라야마 와 밀러(1979)는 지적한다: “와케(例)는 알타이 어의 「바기」와, 아마도 터키어의 「백」 등등의 이형태(異形態)에 비교적 규칙적으로 따라다닌다. 그것은 마치 와케(例)의 ‘젊은, 미숙한’이, 몽골어의 ‘젊고, 어리다’는 말의 어근인 「바가」에 수반하는 것과 같다.”

다.”^{<14>}

이 시대를 다루는 일본 역사가들이, 이 일본서기의 기록들을 읽었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 기록들을, 4세기 말에 강력한 야마토 국가가 존재했다는 것과, 서기 369년에 야마토 왜(大和倭)가 신라와 가야를 정복하고, 미마나(任那)라는 식민지“운영”을 시작했다는, 그들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일본서기의 기록(NII: 246-249)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석한다: 호무다(響田別)라는 백제 왕족의 한 사람과 —사백(沙白), 개로(蓋盧), 사사노케, 목라근자(木羅斤資)를 포함한— 그의 추종자들은, 백제의 근초고왕과 그의 아들[서기 375-384년 동안 통치한 근구수왕]이 마한을 정복하는 것을 도와준 다음, 서기 369년을 전후로한 어느 때에, 일본을 정복하려 가기위해 가야 지역을 통과했던 것이다. 이 작전 중에 신라에 대한 공격은 고려되지 않았었다.

일본서기(NI: 249)는 작별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왕 초고(近肖古王)와 왕자 귀수(貴須, 근구수왕)는 역시 군사를 인솔하고 이들과 회동하기 위해 왔다. 그러자 비리, 벽중, 포미지, 반고의 4개 마을이 자연스레 항복했다. 그리고서 백제왕 부자는 의류(意流) 마을에서 아레다 와케(荒田別), 목라근자(木羅斤資)등과 회동하여 기쁜 마음을 나누고, 정중하게 돌려보냈다.”^{<17>} 일본서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백제의 근초고왕이 의류 마을에서 호무다, 목라근자, 그밖의 백제 장군들과 만나 마한(馬韓)지역에서의 공훈을 치하하고, 배를 타고 일본으로 향해 떠나가는 이들 원정군에 축복을 내리면서 작별을 고했다는 것이다.

(6) 일본에서 싸우는 호무다: 신화적인 이야기로 되돌아가다

호무다(響田別)가 큐우슈우(筑紫國)에 도착했을 때, 오래 전에 그곳에 건너와 정착한 백제 이주민들의 환영을 받은 것 같다. 일본서기(NI: 112-113)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제, 우사 쿠니

쓰코(國造)의 조상인 우사쓰 히코와 우사쓰 히메가 나타나서, 우사 강 독에 기둥 하나를 세워 궁전을 짓고,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호무다 는]우사쓰 히메 와 시신(侍臣) 아마노타네 [나카토미(中臣) 씨족의 조상]에게 명하여 짝을 짓게 하고. . . 다시 나아가서 기비 땅(古備國)에 들어가, 임시 궁전을 짓고 거기서 거처했다. . . 3년이 지났다. 그동안에 그는 선단을 정비하고, 군량을 비축했다. 그의 소망은 단숨에 천하를 평정하는 일이었다. . . 마침내 천황의 군대는 동으로 진격 하였으며. . . 내륙의 땅[中洲, 야마토]으로 들어갔다.”⁽¹⁸⁾

거기서 처음 그들은 원주민들의 완강한 저항을 받게 되었던것 같다(NI: 126-128). 그러나, 얼마 안있어 이전에 백제로부터 큐우슈우를 거쳐 이곳으로 들어온 씨족을 발견했으며, 이 일족의 충성과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천황의 군대는 이윽고 나가스네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몇 번이나 전투를 벌였으나 승리하지 못했다. . . 그러자 나가스네가 사람을 보내어 천황에게 아뢰게 했다: ‘일찌기 천신(天神)의 아들(백제사람)이 한 분 계셨는데, 하늘의 바위배(天磐船)를 타고 이 곳에 내려와 살고 계십니다. 그 분의 이름은 니기하야히(饒速日命)라고 합니다. 그 분은 내 누이를 아내로 맞이 하셨습니다. . . 그래서 나는 그 분을 주군으로 삼고. . . 섬겨 왔습니다. 대체 천신의 자제에 두 씨(兩種)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 . 이에 천황이 말씀하시기를: ‘천신 역시 많은 자식이 있다’. . . 나가스네는 천황이 보여주는 하늘의 증표(天表)를 보고 점점 더 혼돈이 되었다. 그러나 흉기들이 벌써 모두 준비가 되어 있었고, 대세는 이미 싸움을 중지할수 없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본래의 그릇된 계획에 집착하여 마음을 바꿀수가 없었다. 니기하야히(饒速日命)는 천신이 너그럽게도 천손(天孫, 譽田別)에게 천하를 내려 주신 것을 처음부터 알아차리고, 또 나가스네의 사악한 성품으로 미루어 그에게 하늘과 인간(다시 말하여, 주군과 신하)의 관계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죽여버렸다. 그리고 나서 니기하야히는 군대를 이끌고와서 항복했다. 니

기하야히가 하늘(백제)에서 내려 온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듣고 있었던 천황은, 그가 이제 실제로 총성스러운 봉사를 한 것을 알고, 그를 칭찬해 주고 총애했다. 그는 모노노베(物部) 씨족의 시조(遠祖)인 것이다.”^{<19>}

일본서기(NI: 129-130)는, 그때 까지도 다카오하리 마을에는 진무(神武)의 궁정에 출두하기를 거부하는 쓰치구모(천황의 권위를 부정하는 무법자들 이었다고 애스턴은 지적한다)들이 있었으나, 진무가 군대를 보내 모두 주살해 버렸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마을의 이름이 가쓰라키(葛城)로 바뀌었다. 그 곳은 이하레 땅에 있다(夫磐余之地). 이곳의 옛 이름은 가타루(片居) 혹은 가타타치(片立)라고 했다. 천황의 군대가 적을 무찌르자 많은 군사가 몰려 들어 이 땅을 가득채웠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이름이 이하레(磐余)로 바뀐 것이다.”^{<20>}

일본서기(NI: 131-134)는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천황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셨다: ‘우리의 동방 원정이 계속된 6년 동안에. . . 사악한 무리들은 모두 죽음을 당했다. 변경 지방은 아직도 정화(淨化)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 . 중앙의 땅(中洲)에는 이제 아무 풍진(風塵)도 없다. . . . 그러므로 나는 이 왕국을 내게 내려 주신 하늘의 덕에 보답할 것이며. . . 길이 황손(皇孫)을 낳히고 바른 마음을 가꾸어 나갈 것이다’. . . 천황은 가시와바라 궁에서 등극하셨다. 이 해가 천황 치세의 원년으로 간주된다. . . 이렇듯 천하를 통치하기 시작하신 천황은 가미 야마토 이하레 비코(神倭伊波禮毘古, 神日本磐余彦)라 불렀다. . . 천황은 와키카무 언덕에 올라, 사방으로 나라의 모양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었는가!’”^{<21>}

(7) 호무다(譽田別)의 일본정복: 이파례(伊波禮)와 위례(慰禮)

근초고왕(近肖古王)은 고사산(古沙山)에서 천추만세에 걸쳐 변하지 않기로 맹약을 하면서, 호무다의 일본 원정을 고무 해준 것 같

다.^{<17>} 일본서기(NI: 251)는 또 서기 372년에 근초고왕이 호무다에게, “다른 여러 가지 매우 귀중한 물건과 함께 칠지도(七枝刀) 한 자루와 칠자경(七子鏡) 하나”를 보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22>}

호무다가 큐우슈우를 거쳐 중부 일본의 정복에 성공하고 야마토 국가를 수립하자, 백제는 축하 사절단을 파견하여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NI: 250): “천조(天朝, 야마토 조정)의 드넓은 은덕이 이제 폐읍(백제)에 도달하여, 우리 임금님께서서는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셨습니다. 임금님은 뿌듯한 마음의 . . . 성의 표시로 사절단을 보내셨습니다. 앞으로 만세가 지난들, 어찌 빠지는 해가 있겠습니까?”^{<23>} 다음과 같은 회답을 보낸 것은 호무다(당시는 오오진)가 틀림 없었을 것이다(NI: 250): “우리는 신의 뜻에 따라 처음으로 길을 열었고, 바다 서쪽의 땅(마한지역)을 평정하여, 이를(일본에 오는 길에) 백제에게 주었는데, 이제 다시 우의의 기반을 더욱 돈독히 하여, 이 사랑의 결속을 영원토록 지속시킬 것입니다.”^{12 <23>}

레드야드(1975)는, 오키나가(息長帶日賣命, 神功)가 돌로 치마를 눌러 산월이 3개월이 지나도록 아기가 자궁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는, 황당무계한 일본서기의 호무다 탄생 이야기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때 오키나가는 한국에서 작전 중이었으며, 그녀는 큐우슈우로 돌아갈 때까지 호무다의 출산을 늦추고 싶어했다고 한다. 고사기(KC: 286)에 의하면, 그 문제의 땅은 바로 친구우(神功)의 배속에 있던 거룩한 아이(御腹之御子), 곧 호무다(品陀和氣命, 應神)가 다스리게 될 땅이었다. 고사기(KC: 289)에 의하면,

¹²일본서기(NI: 254)에 의하면, 오오진(應神)은 태어날 때, 팔에 팔꿈치 덮개 모양의 살이 돌아났다고 한다. 활쏘는 사람이 팔뚝에 감는 가죽 받침대 혹은 팔꿈치 덮개는, 시위가 감기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이 팔꿈치 덮개를 옛날에는 호무다라고 불렀으며, 그래서 오오진은 호무다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서기(NI: 254-255)는 또, 오오진의 원 이름은 “이사사”이었고, 호무다는 쓰노가에 있던 쓰쓰히 신의 이름이었는데, 서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기록하고 있다.^{<24>}

그 거룩한 아이는 진구우가 한국에서 큐우슈우로 건너간 뒤에 태어났다는 것이다.

여기서 레드야드(1975)는 결론을 내린다: “호무다의 실체가 한국에 있었다는 것이, 이 이야기에 암시되어 있고, 전설을 꾸며 낸 사람들은 산부인과적 숙임수를 씌우로서만, 그를 일본에서 태어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 모두가 정복자의 전통을 왜(倭)의 토착 전설 속에 끼워 넣는데서 생긴 문제들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히라노(平野邦雄, 1977) 뿐 아니라 일본의 대부분의 전후 역사학자들은, “일본의 한국과의 관계의 출발점을 오오진(應神)의 치세에 결부 시키는 일본서기와 속일본기의 전반적인 경향”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서기(NI: 221-222)에 의하면, 진구우(神功)는 호무다를 한국 땅에서 잉태하여, 바다를 건너 와, 일본에서 출산했으며, 이곳이 바로 호무다(胎中之帝)가 차지할 것이라고 했던 “반대쪽 건너편의 땅”인 것이다.

레드야드(1975)는 또 진무(가미야마토 이하레 비코, 神倭伊波禮毘古, 神日本磐余彦)의 칭호에서 발견되는 지명 “이하레(伊波禮, 磐余)와 호무다의 수도(都) 이름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NI: 24) <2> 레드야드는 말하기를 “이하레”의 한국어 이형(異形)은 “이파르” [거발, 居拔(城), 로 쓰지만, 한국어에서 “거(거)”의 훈독(訓讀)은 “이”이므로, “이발” 또는 “이파르”가 된다]인데, 수서(隋書), 북사(北史), 통전(通典) 등에 의하면, 이것은 백제 수도의 이름이라는 것이다(CCII: 44 와 127 참조). 이하레(磐余)란 단어의 둘째번 한자 “여(余)”는, 부여(扶餘)라는 단어에서 나타나는 두번째 한자인데, 이것은 “이하레”와 백제의 마지막 도읍인 부여와의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¹³

일본서기(NI: 241)에 의하면, 호무다가 진구우 섭정 3년에 황태

¹³이하레는 또 야마토(大和)지방에서는, 야마토 왕들이 대궐터로 즐겨 사용하던 자리였었다. 필리피(KP: 476)는 “고사기가 리츄유(履中), 세이네이(淸寧), 케이타이(繼體), 오오메이(用明) 등의 궁전이 이하레(伊波禮)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자로 만들어 졌으며, “이로 인해 이하례를 서울로 삼았다(因以都於磐余)”고 한다.²⁵⁾ 고사기에서는 이하례를 이파례(伊波禮)로 쓰고 있다. 백제의 첫 수도는 위례(慰禮)였다. 삼국사기(이병도 역주, 상: 262, 와 하: 231)는, 서기 4년에 고구려 제2대 유리왕(琉璃明王)이 수도를 졸본(卒本)에서, 위나암성(尉那巖城)이라고 부르는 국내성(國內城)으로 옮겼다고 말한다. 주서(周書, CCI: 596)에 의하면, 백제왕을 어라하(於羅瑕)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이기동(1990)은, 위례(慰禮)와 어라(於羅)는 같은 뜻을 나타내며, 위례는 왕을 의미한다는 가설을 인용하고 있다. 도수회(1972)는 위례(慰禮)와 어라(於羅)와 위나(尉那)가 모두 같은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하례(伊波禮)의 셋째 글자 례는 또 위례의 둘째 글자 이기도 하므로, 이 두 말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 우리는 호무다의 수도 이하례(일본서기에서는 磐余로 쓰고, 고사기에서는 伊波禮로 쓴다)가, 백제의 첫 수도 위례를 따른 것이며, [북서의] 이발(居拔) 및 [주서의] 어라하(於羅瑕)와 일치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호무다가 야마토 왜를 세우고, 백제 첫 수도의 이름인 위례(이발 혹은 어라하)를 본따서, 그의 첫 수도를 이하례(伊波禮, 磐余)라고 불렀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8) 호무다의 이야기를 진무와 오오진의 이야기로 나누다

김성호(1982)는, 일본의 궁중 역사가들이, 백제의 호무다(響田別, 應神)가 초기에 겪은 경험에서 진무를 만들어 냈고, 호무다의 나중 경험에서 오오진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한다. 사실 아오키(1974: 35-37)는, 하리마 풍토기(播磨風土記)를 포함한 많은 지방의 관보들이, 호무다의 전투적인 생애와 공격적인 성품에 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데 반해, 일본서기나 고사기는 호무다의 군사적 활동에 관해 별로 언급을 않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¹⁴⁾

¹⁴⁾아오키(1974: 36)는 하리마 풍토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와 같은 기사 하나를 소

아오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아마도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은 호무다의 어떤 측면을 음폐하기 위한 노력을 시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편찬자들은, 호무다가 야마토 국가의 지배자로서, 혹은 일본 열도의 여러개 동맹을 한데 통합시킨 인물로서 등장하는 시기를 전후로 해서, 호무다가 보여주는 호전성을 감추려고 무척이나 고심들을 한것 같다.”

우리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편찬자들이 지방의 기록들에 적혀 있는 호무다의 모든 군사 활동을, 오오진(應神)이 아니라 진무(神武)가 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알수 있다.¹⁵ 아오키(1974: 39)가 말하듯이,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호무다의 침략적 성격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의도적인 것 같다.”

야마토 계곡에 새로 도래한 것은 백제인 이었다. 그들의 지도자 호무다는, 백제 왕족의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필자들은, 호무다로 부터 정복자 진무와, 평화의 인물 오오진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일본서기의 진구우 편에는, 호무다가 오키나가 타라시히메(息長帶日賣命, 神功)의 아들로 나타나, 그늘에 가려진 황태자 구실을 한다. 그러나, 진무와 오오진을 하나로 합쳐보면, 우리는 금방 정복자 이자 야마토 왜(大和倭)의 창건자인 호무다의 모습을 뚜렷이 볼수 있고, 이어 공격적인 호무다의 군사 활동에 대한 각지방의 그 모든 기록들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노우에 井上외 3인, 1984: 273 참조).

개하고 있다: “호무다 왕자때에, 하리마 땅에는 끊임없이 싸워대는 200여명의 추장들이 있었다. 호무다 왕자는, . . . 그들을 모두 이 마을[구사에]에다 몰아 넣고, 처형했다. 시체가 무서운 악취를 풍기고, 피가 강을 이루었다. . .”

¹⁵아오키(1974: 37)에 의하면, 호무다(嚙田別)가 태어날 때 팔에 생긴 흉터(말하자면 활을 쏠때 쓰는 팔꿈치 덮개)에 관한 일본서기의 기록은, 그가 호전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바로 그런 이유때문에 “그의 침략적인 활동에 대한 일본서기의 침묵은, 우리의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9) 목라근자(木羅斤資)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부수적인 이야기들 가운데서, 아주 흥미있는 것은 백제의 장군 목라근자(木羅斤資)에 관한 것이다. 그는 호무다가 왜(倭)의 군주(진무-오오진)가 된 이후 뿐 아니라, 그 전에도 그에게 충실한 장군 이었던것 같다.¹⁶ 일본서기(NI: 252)는, 신라가 조정에 참례하지 않으므로, 이를 문책하기 위해 소뜨히코(襲津彦)가 파견 되었다고 말하면서, 백제기(百濟記)를 인용하고 있다: “임오년 [서기 382년]에, . . . 귀국(貴國, 倭)은 사치히코(사치비케, 소뜨히코)를 보내어 신라를 공격하게 했다. . . 신라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자 두명을 곱게 단장시켜, 항구에서 사치히코를 맞이하여 그를 유혹하게 했다. 사치히코(가쓰라키노 소뜨히코, 葛城襲津彦)는 그 미녀들을 받아들이고서는, 방향을 옆으로 틀어 가라국(加羅國)을 공격했다. 가라국(가야)왕 기본한기(己本旱岐)는 백구지, 아수지, 국사리, 이라마주, 이문지등 자식들과 함께 백성들을 거느리고 백제로 달아났다. . . . 가라국왕은 누이 기전(既殿)을 왜(倭)에 보내어 사정을 고했다. . . . [사치히코가 저지른 일을 듣고 호무다는] 크게 노하여, 목라근자(木羅斤資)로 하여금 군대를 거느리고 가라에 가서, 그 사직(社稷)을 복구시키도록 했다.”¹⁷ (26)

일본서기(NI: 267-268)는 다시 목라근자에 관한 백제기(百濟記)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 “목만치(木滿致)는 목라근자의 아들이었다. . . . 그의 아버지의 위대한 공적 덕분에, 그는 임나(任那)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누렸다.”^(3, 4, 33) 목라근자의 이른바 “위대한

¹⁶레드야드(1975)는, “목라(木羅)”가 분명히 백제의 우수한 무사 집안을 대표하는 것 이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비슷하게 발음되는 이름들이(다른 시대의 다른 기록에서 이지만) 삼국사기(肅幽 21년)와 남제서(南齊書) 백제편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¹⁷일본서기(NI: 252)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사치히코는 [호무다가] 자기에게 대단히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고서, 감히 공공연히 [倭에] 돌아가지 못하고, 몰래 들어갔으나. . . 자기가 용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자, 스스로 암굴 속에 들어가서 죽었다.”⁽²⁶⁾

공적”이란 것은, 일본을 정복할 때의 호무다에 대한 봉사와, 호무다의 뒤를 이어 일본으로 건너오는 백제인들의 끊임없는 흐름을 위해, 계속 가야의 회랑(回廊)을 열어둔 그의 공적을 말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10) 가쓰라키 노 소쓰히코(葛城襲津彦)

또 하나, 좀 앞뒤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부수적인 이야기가 소쓰히코(襲津彦)에 관한 것이다. 소쓰히코는 진구우 5년(일본서기 방식에 의하면 서기 205년), 한국 사서에 의하면 서기 418년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한 이야기와 관련하여, 일본서기(NI: 243)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소쓰히코는 분명히 “황태자” 호무다와 의논도 없이 타타라항구를 거쳐 신라로 들어가, 초라성(草羅城)을 공략하고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이 포로들이 “구와바라, 사비, 다카미야, 오시노미 네 마을에 사는 한(漢, 아야) 씨족의 시조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27>}

소쓰히코는 진구우 6년(일본서기의 방식으로는 서기 26년) 백제기(百濟記)를 인용한 대목에서 두 번째로 일본서기에 등장한다. 그 기록은 소쓰히코가 신라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서기 382년], 신라대신 가야를 공격했으며, 또 소쓰히코가 파괴시켜 놓은 것을 원상회복 시키기 위해, 목라근자(木羅斤資)가 군대를 이끌고 가야로 파견되었다는 것이다.^{<14>}

소쓰히코는 오오진 14년[서기 404년] 궁월군(弓月君)에 관한 이야기에서, 세 번째로 일본서기(NI: 261)에 등장한다. 궁월군은 백제에서 건너와 호무다에게, 그가 자신의 120개 부락 백성들을 이끌고 충성을 바치러 오는데, 신라가 강제로 그 사람들을 가야에 머물게 했노라고 고했다. 그래서 소쓰히코가 가야에 가서 궁월군의 백성들을 데려 오도록 파견된 것이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소쓰히코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서기(NI: 262-264)는 다시, 그래서 호무다가 두 사람의 장군에게 정예군을 주어 가야에 파견했으며, 그들은, 궁월군의 백성들과 소쓰히코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

고 기록하고 있다.

소쓰히코는 닌토쿠 41년(일본서기의 방식으로는 서기 353년) 백제왕의 손자 주(酒)에 관한 이야기에서, 일본서기(NI: 293)에 마지막으로 등장한다. 즉, 주군(酒君)이 무례한 짓을 했기 때문에, 백제왕은 그를 쇠사슬에 묶어 소쓰히코의 감시 아래 닌토쿠(仁德)에게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⁸⁾

킬레이(1973)는, 소쓰히코에게 이와노 히메(磐之媛)라는 딸이 있었는데, 닌토쿠(仁德)의 왕비가 되어, 5세기 후반의 모든 왜 왕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킬레이도 또 소쓰히코가 6세기 소가(蘇我)씨족의 조상이 된다고 말한다.¹⁸⁾ 레드야드(1975)는, 소쓰히코가 일본서기에서 언급 될때마다, 그는 바로 한국땅이 아니면 그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나 킬레이도, 또 레드야드도, 가쓰라키 노 소쓰히코가 목라근자(木羅斤資)처럼 백제 장군이었을 것이라고는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다.

에가미(1964)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 천손(天孫)의 으뜸인 니니기를 따라다닌 가장 중요한 두명의 인물이, 오오토모노 무라지(大伴連)의 조상 아메노 오시히와 구메노 아타에(久米直, 또는 구메베)의 조상 아마쓰 쿠모 었다고 지적한다. 이 두 인물은 천손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군사 작전가들이었다. 진무(神武)가 동쪽으로 진군했을 때도, 그를 섬긴 장군들인 오오토모 노 무라지의 조상 히노오미와 구메베의 조상 오쿠메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되고 있다. 에가미에 의하면, "이것은 후일 오토모 노 무라지와 구메노 아타에가 왕실 측근의 매우 강력한 무사 집안 이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남한 시대 때부터 황족의 군사 작전가들이었고, 또 일본 국가 수립에 있어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우리가 부인해야 할 만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¹⁸⁾일본서기(NI: 337과 373)에 의하면, 유우라쿠(雄略)의 첫째 측실의 이름은 가쓰라키 노 가라히메(葛城韓媛)였으며, 그녀는 가쓰라키의 쓰부라 오오미(圓大臣)의 딸이자 세이네이(淸寧, 재위 480-484년?)의 어머니였다.²⁹⁾

(11) 큐우슈우(九州)에서 킨키(近畿)지방으로

에가미(1964)는 말한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이러한 전통으로 미루어 본다면, 야마토(大和) 조정의 천황들 조상으로 생각되는 천손(天孫)들이 남한으로 부터 북큐우슈우로 건너가, 쓰쿠시(筑紫)에 다 그들의 첫번째 정착지를 세웠으며, 몇 세대가 지난 뒤 킨키(近畿) 방향으로 이주해 갔다고 추론 할수 있을 것이다.” 에가미는 미마키(御間城入彦)를, 쓰쿠시에 첫 정착지를 만들었다는 그 “천손”으로 간주하고, 진무(神武)를 킨키지방의 야마토 조정 창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천손(미마키)과 진무 사이에 “몇 세대의 경과”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간단히 호무다(應神)를 황족의 창시자로 본다. 호무다는 백제로부터 (한국 남부의 가야 지역을 거쳐) 북큐우슈우로 건너 갔으며, 그런 다음, 몇 세대가 아니라 몇 해가 지난 뒤, 동쪽으로 이동하여 킨키지역에 야마토 조정을 세웠다고 보는 것이다.¹⁹

(12)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

우리는 어쩌서 일본서기나 고사기가, 백제와 야마토 왜와의 관계에 대해 솔직한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지, 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서 김부식(金富軾)의 삼국사기 같은 한국 사서들 에서도, 이들 관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는지 이상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가아디너(1988)는, 김부식이 백제의 숙적 이었던 옛 신라 지배 씨족의 후손이었고, 따라서 무엇이든 백제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기록을 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가졌을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가아디너(1970)에 의하면, “이들 삼국 가운데서 오직 한개의 왕국, 즉 신라만이 정통적인 통치자들의 계보를

¹⁹야마토 황족의 기원이 호무다(譽田別)라는 주장은, 일본서기(NI: 9 와 NII: 34)에 “태중지제 때로부터 (自胎中文帝)”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뒷받침 된다.³⁰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자는 것이, 김부식의 목적인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²⁰

가야디너(1970)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백제는 매우 오랜기간 동안 신라의 주된 적이었으며, . . .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 . . 서기 900년에 스스로 ‘후백제(後百濟)의 왕’이라고 선언한 견훤(甄萱) 장군이, 918년 궁예(弓裔)가 죽은 다음, [김부식이 신라의 합법적 후계자라고 간주한] 고려 시조 왕건(王建)의 최대 경쟁자가 되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신라를 계승한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 신라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김부식의 의도에 비추어 볼때, 그가 백제를 기록하는 지면을 줄이고, 우호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감정을 가지고 서술하며, 백제의 창건년도를 신라보다 훨씬 늦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백제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려 한 것은, 김부식으로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고 볼수있다. 백제와 야마토 왜(大和倭) 사이에 여러 세기 동안 존속했던 긴밀한 동맹 관계에 대한 기억 또한, 후세의 한국 역사가들로 하여금 김부식이 그려놓은 백제에 대한 부정적 서술을 정당하도록 하는데, 결코 도움을 주었을리가 없는 것이다.”

김부식이 백제와 야마토 왜 사이의 중요한 측면을 격하시키려 노력한 것은 분명하다. 특히 그는 야마토 왜의 형성에 있어서, 백제의 역할에 대한 어떠한 힌트도 배제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 김부식조차도, 5세기로 접어들 무렵 백제와 야마토 왜 사이에 일어난 사태의 발전을 완전히 무시할수 없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三國史記)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아신왕(阿莘王) 6년 5월(서기 397년), 왕은 왜와 결호(結好)하고, 태자 전지를 왜에 질(質)로 보냈다. . . 11년 [서기 402년] 5월에 백제는 왜에 사절단

²⁰가야디너(1970)는 말한다: “김부식은 몇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 말하자면, 다른 두 왕국보다 신라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신라 초기의 전설적인 통치자들의 현명한 자질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그리고 신라의 창건이 다른 두 나라보다 앞서도록 연대기를 배치함으로써, 나머지 두 나라의 통치자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왕권 찬탈자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을 보내어 큰 구슬을 얻었다. 12년 [서기 403년] 2월에 왜로부터 사자가 왔으며, 왕은 이들을 마지하여 특별히 후대하였다. . . 14년 [서기 405년] 9월에 [아신 혹은 아화] 왕이 사망했다. . . [백제 조정은] 왜에서 태자 [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 동안 [전지의] 다음 동생 훈해(訓解)가 섭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내 동생 설례가 훈해를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왜에서 부왕의 부음을 듣게된 전지는 통곡을 하면서, 귀국을 청했다. 왜왕은 병사 백인으로 하여금 전지를 호위시켜 보냈다. 그가 국경에 도착했을 때, 한성(漢城) 사람 해충(解忠)이 찾아와서 말했다: ‘대왕께서 돌아가시자, 태자의 막내 동생 설례가 형(訓解)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원컨대 태자께서는 조심하시고[한성에] 가지 마십시오.’ 전지는 왜의 병사들로 하여금 자기를 지키게 하고, 어느 섬에서 기다렸다. 얼마 안있어 백제 사람들이 설례를 죽이고, 전지를 왕위에 모셨다. . . 5년 [서기 409년]에 왜는 사자를 보내어, 야광주를 전했으며, [전지]왕은 그들을 정중히 맞이했다. . . 14년 [서기 418년]에 백제는 왜국에 사신을 보내어 명주 14필을 전했다. . . 비유왕 2년 [서기 428년] 2월 왜로부터 50명의 종자를 거느린 사신이 도착했다.”⁽³¹⁾

삼국사기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짧은 기간 [즉, 서기 397년으로 부터 428년 까지의 30년 간] 동안에 집중된, 백제-왜(倭) 관계에 관한 광범위한 기록이라 할수 있다. 김부식은 아마도 4세기 말에 일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백제와 야마토 왜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었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대수롭지 않은 사실들만을 조심스럽게 골라, 최소한의 서술만을 해 주기로 결정했던 것 같이 보인다.